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광복 50주년 -

민족의 희년을 기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의 나팔 소리를 온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를 기점으로 7년이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켰다. 그리고 안식년을 일곱 번 거듭한 다음 해, 곧 50년이 되는 해 정월 첫날을 대사면의 날로 선포하고 온 나라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어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했고 그 해를 희년으로 삼았다.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이와 같은 희년의 축복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으며 민족

적인 기쁨과, 세계적인 구원과, 복된 천국의 그림자였다.

오늘은 50년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광복 기념 주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던 희년이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에게도 속히 도래하기를 기원하고, 자유를 선포하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진정한 희년의 복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나누는 천국시민들이 되어야 하겠다. 온 민족의 죄가 사면되는 희년의 날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던 축제의 날이기도 했다. 우리는 오늘, 영적인 희년이 우리 민족에게도 도래하도록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 인류 누구에게나 희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선 곳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나누는 사명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안식과 땅감의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희년의 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결심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

청년부 수련회(13일 ~ 16일)를 끝으로 각 부서별 여름행사 마무리

지난 달 17일에 당회원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여 계속되어오던 교회 학교와 각 부서의 여름행사가 이번 주에 가지는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전교인 가족 수련회와 함께 진행하던 예년과는 달리 교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교회학교별로 가진 올해의 여름행사는 교회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함으로써 대체로 교육적 성취도도 높았고 효과적이고도 밀도 높은 운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올해의 계절학교는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내용과 교육방법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교회당에서 가진 유치·유년·초등부의 성경학교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도 눈에 띄었으며, 주일의 한정된 여건 속에서 할 수 없었던 특별활동이나 신앙훈련을 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다. 특별히 초등부는 교회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다음날의 새벽기도회를 참여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통해 힘써 예배하는 생활을 배우도록 하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훈련도 겸하였다. 사랑부는 하루동안 이기는 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유있게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을 좀더 깊이 가질 수 있었고, 잘 출석을 못하던 학생이나 처음 나오는 학생들에게 사랑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 각각 외부에서 2박 3일 혹은 3박 4일간의 수련회를 통해 영적인 훈련을 하였다.

오늘 찬양예배 후 출발하여 오는 16일(수)까지. 3박 4일간 이순환 목사를 강사로 하여 강화도에서 가지는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95년 여름 행사는 모두 마치게 된다.

계절학교는 일년 중 부서별 행사로는 가장 비중있는 것으로써 교회 학교의 경우, 많은 학생과 교사들은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의 집중적인



여름행사는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 거듭남과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기도 한다.

▲사진은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가진 고등부수련회

영성 훈련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기도 하고, 신앙성숙과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각 부서는 이번 여름에 주신 은혜들을 잘 정리하고, 그 행사를 통해 거둔 열매들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다음의 더 나은 행사를 위한 철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학습·세례식

8월 학습·세례식을 23일(수) I, II부 예배 시에 거행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21일(월) 오후 7시에 2층 예배실에서, 문답은 22일(화) 오후 7시에 4층에서 한다. 문답은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장학금 신청, 오늘 마감

'95 하반기 장학금 선발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오늘로 마감한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구장이나 해당부서 지도 교역자의 추천서, 성적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상강단

- 해방 50년,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바라면서 -

民族 同質性 回復을 위하여(II)

이 중 윤 목사

<지난주에서 계속>

통일에 대한 논의는 어느 때이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탈이데올로기화 시대에 공산주의면 어떻게 자본주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말할지 모르나 - 물론 인간의 이데올로기는 절대화 되어서는 안되지만 - 이런 것들을 극복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통일 문제에 방관적 자세만을 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한국교회는 통일된 통일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7.4 공동성명 이후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자유와 민주화를 통해 자결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진보주의적 입장과 반공과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반공, 멸공만을 주장하는 보수측 입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들어 민족통일로 가는 길에 사용해 주셨다.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KNCC는 1985년 2월 한국교회 평화통일론을 채택하고 민주주체의 통일론을 제시했다. 1988년 2월에는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통일논의에 침묵을 지켜왔던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비로소 한국교회는 명실공히 통일에의 논의를 교회 전체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KNCC의 선언문의 배후엔 역시 민족공동체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실향민이 많은 남한에서 동족개념을 강조하고 나선 KNCC의 주장은 심정적 공감대를 이루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보다는 자주를 더 강조한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반제국주의 정신이며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거기엔 민족주의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주의하에선 민족이란 별 의미가 없으며 의제간섭 배격이나 미국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민족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서 남한의 민족주의에 호소하는데 효과적 전술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KNCC는 1986년 WCC의 주선으로 북한대표단과 최초로 스위스 글리온에서 만난 이후 1988년 11월 남북기독교 대표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여 1995년을 통일 회년으로 함께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후에도 수차례 만나 제2차 글리온 회의의 합의사항 특히 회년사업에 열을 올렸다. 1995년은 해방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에서 생각한 1995년은 자기들 계획대로 통일이

이루어질 여건이 성숙된 해라는 것이다. 1995년이 회년이라면 이는 다분히 성서적이라기 보다는 인위적이다. 구약에서 가르친 회년법은 메시아 예언의 차원에서 주신 제도이다. 더욱이 통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구태어 회년법을 억지로 적용하여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삼자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독일통일은 왜 50년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들의 회년계산법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일까. 회망과 현실은 다른 법이다. 1995년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해에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은 말할 수 없다.

1993년 8월 15일 남북나눔 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인간띠 잇기대회는 서울의 독립문에서 임진각까지 연6만명이 동원되어 성원을 이루었다. 이때도 피상적이고 선전적 전시효과와 국민의 통일염원을 집약시키겠다는 의도엔 충족되었는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지난날을 참회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일에는 미흡했던 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바가 아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몇가지 실천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자는 운동은 비교적 보수측 교회들의 호응은 얻었지만 이것 역시 흐지부지 되고만 느낌이다.

왜 그랬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밤 갑자기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양측이 안고 있는 독선과 아집, 갈등과 분열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지 못한채 몇몇 지도자들이 몇차례 만나고 행사중심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서 얼싸안고 함께 춤을 출 수 있을까. 예서와 야곱이 20년만에 해후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들의 열망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야곱의 철저한 회개와 예서의 폭넓은 용서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통일지상, 민족지상이라는 통일환상에 빠져들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제시한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기초하에 남북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건설 등 3단계 통일 정책이 있으나 방법론을 논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북한은 통일하면 사회주의체제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남

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민족정기 또는 민족지상을 말하나 통일의 목표설정이 애매하다. 이 땅에 이루어질 민족공동체가 어떤 형태의 것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통일이 된다 해도 마음이 하나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통일은 아니다. 그래도 남한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일의 주도권은 남한이 잡을 것이 확실하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선행될 때 진정한 민족동질성이 회복되고 남북이 하나되어 진리를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교신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따라서 정치집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민족의 미래를 논해서는 안된다. 교회가 제시하는 민족운동도 정치적인 단체와는 달리 현실주의적 성격만을 띄는 것이 아니고 다분히 이상적일 수 있다.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대한 종교신앙은 당대에는 가건적 결실이 없을 수 있으나 긴 역사과정을 놓고 볼 때 역사 발전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용서의 신앙과 민족애가 차원높게 결합되어 영원 속에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예지가 남북한 교회에서 발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끝>

✦ 순례자 컬럼 ✦

해방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으로 출애굽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출애굽의 해방은 그들의 육체적 자유의 기회는 되었으나 영적 각성을 통한 새로운 의식의 해방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의 세월이 유보되어야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와 진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교만이 물고은 독선과 거짓으로부터의 해방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교훈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찾은지 50년이 되는 지금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해방은 되었다해도 아직도 광야생활에서 해매고 있지 않은가. 청산해야 할 불신과 불의와 불충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벗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한국 역사는 한마디로 분단과 대결, 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문제를 큰 축으로 하고 인권과 자유,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와 자립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자주, 대내적으로는 근대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한국교회 사도 민족 구원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기독교 본래의 사명을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은 우리의 민족 사적 과제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영적 도덕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해방 후 한국의 기독교사를 언급하려고 할 때, 남한의 역사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한국역사는 ①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진통기(1945 ~ 53), ②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시련기(1953 ~ 61), ③군부통치하의 경제건설기(1961 ~ 79), ④군부독재에 대한 투쟁기(1979 ~ 93), ⑤문민통치기(1993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동안 첫째 민족적으로는 분단 고착화에 언어와 제반 이념, 정치·경제의 체제, 민족 문화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둘째 인구와 경제면에서는 성장이 급격하여 남북의 격차를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셋째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에 따라 가치관을 비롯한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넷째 문화면에서는 전통문화의 재발굴과 계승·발전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세계문화와의 부단한 접촉으로 다원화 현상을 점차 띠어가고 있다.

해방 후 한국의 교회사도 우리 민족사가 보여준 진통기를 경험하며 갈등·분열의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였다. 오랜동안의 군부통치 속에서 세속권력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권을 실현·수호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였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세계선교사상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룩한 것이 또한 해방 후의 한국교회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신학과 신앙, 선교와 훈련, 조직과 인식, 교육과 봉사 등 자체의 성장, 성숙에 힘쓰는 한편 한국사회에 대한 봉사와 개혁에도 헌신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해방 5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시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그 역사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해 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해방 후 한국역사는 ①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진통기(1945 ~ 53), ②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시련기(1953 ~ 61), ③군부통치하의 경제건설기(1961 ~ 79), ④군부독재에 대한 투쟁기(1979 ~ 93), ⑤문민통치기(1993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동안 첫째 민족적으로는 분단 고착화에 언어와 제반 이념, 정치·경제의 체제, 민족 문화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둘째 인구와 경제면에서는 성장이 급격하여 남북의 격차를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셋째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에 따라 가치관을 비롯한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넷째 문화면에서는 전통문화의 재발굴과 계승·발전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세계문화와의 부단한 접촉으로 다원화 현상을 점차 띠어가고 있다.

해방 후 한국의 교회사도 우리 민족사가 보여준 진통기를 경험하며 갈등·분열의 상처를 싸매기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였다. 오랜동안의 군부통치 속에서 세속권력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권을 실현·수호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였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세계선교사상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룩한 것이 또한 해방 후의 한국교회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신학과 신앙, 선교와 훈련, 조직과 인식, 교육과 봉사 등 자체의 성장, 성숙에 힘쓰는 한편 한국사회에 대한 봉사와 개혁에도 헌신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해방 5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시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그 역사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해 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 한국교회의 해방

1945년 한민족에게 주어진 해방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한국교회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민족해방이 식민지 하의 반민족적인 잔재를 청산하는 일과 연결되어야 했듯이 한국교회의 신앙자유회복은 일제하의 반기독교적 죄악을 청산하는 것과 직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단호히 청산해야 할 자리에서 지

나치게 타협하였다. 이는 해방 후 민족정기와 반기독교적 잔재를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철저한 회개가 없었던 한국교회. 그럼으로 해방 공간에서 더 이상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없었던 한국교회. 여기서 철저한 회개란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도 상대화하는 것으로, 어떤 이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해방 후 한국 신학계는 우리의 문제를 신학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는 우리사회의 사회과학적인 문제를 신학의 과제로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 지도자들도 적지 않다. 또 신학화의 과제를 열린 모습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인필칭 입으로는 '한국적 신학'을 운운하고 있지만 기실은 외국의 신학에 기생하고 있으며, 자기의 문제에 고민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신학화하려는 노력에 오히려 방해적 요인

해방 50년, 한국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만 열 전도사(청년부 지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이 글은 필자가 <해방 50주년 및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설립 5주년 기념 공개 학술 심포지움>에서 행한 기조 강연으로, 필자의 허락 하에 요약하여 실은 것이다. 원문은 『복음과 상황』 1995년 6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

님이나 권력까지도 그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철저한 회개는 세속적인 것과의 단절 대신 타협을 지속하여 4.19와 5.16 후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단절되자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편승하여 결국 '물신(物神)'과 연계된다. 한국 기독교가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존재나 가치를 상대화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방 후 일제 잔재를 그대로 방치한 채 '단절'과 '부정'이라는 철저한 청산을 하지 못한 연유이다.

■ 한국교회의 성장

한국교회의 본격적 성장은 민족적 각성을 가능케 한 4.19와 이어서 발발한 5.16의 군부통치에 의해 막이 열린 1960년대에 들어서서 가능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기독교 일각에서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영적 메시지로 하여 복음의 강조점을 변화시켜 가고 있었다.

대학에서는 선교단체들이 일어나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켰고 성경공부운동과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다각적으로 개발되었다. 세계적인 부흥사 초청, 거룩적인 민족복음화 운동이 양적 증가를 가져왔고 군복음화 운동, 언론복음화 운동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은 1980년대 '선교 100주년'을 맞으면서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는 수치를 운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사회로 변화하지 못한 것은 한국 기독교의 성장이 급격한 사회변화와 거기에 대응하려는 종교적인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해방 50년의 한국교회 성장의 역사는 한국 민족과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에 미흡했고, 복음의 엄청난 잠재력을 민족과 함께 공유하지 못했거나 고난받는 민중을 위해 공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 한국교회의 신학

한국교회가 100여년의 역사와 세계선교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은 성숙을 이룩하지 못한 이면에는 자신의 문제를 신학화하는 데에 게을렀다는 것과, 아직 자신 의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한계를

으로 작용해 왔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해방 50년의 한국교회가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를 신학화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세계적인 신학자 한 사람을 제대로 내어 놓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한국교회의 과제

한국교회는 지난 50년간 분열과 파쟁의 그늘진 과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확립에 필요한 자신의 기독교문화와 기독교윤리, 신학, 신앙고백 등을 창출하는 데에도 미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외적 성장과 선교의 확장, 인권·민주화 운동과 민족통일 운동에 대한 공헌, 소외받은 자를 도운 것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50년간의 역사에서 보이는 반성과 성과를 기반으로, 그 변증법적 진행과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간에 나타난 한계와 부정적인 요소는 극복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배양하여, 2천년대의 새로운 한국교회를 맞이할 시점에서 있다. 최근에 와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교회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학과 신앙, 기독교 운동에서 대립과 갈등을 빚던 소위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제휴하는 고무적인 현상은 일치와 화해를 제일의 과제로 추구해야 할 한국교회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나 가야 할 방향이다.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남겨두시고 성장·발전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로 새겨볼 수 있겠다. 첫째는 민족화합과 민족통일의 과제를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한다. 둘째는 분단과 역경 속에서도 존재해 온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고난의 경험을 세계 특히 제3세계와 세계교회에 전달하는 통로로서 한국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사명을 자임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받기만 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주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2천년대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그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정신개척! 개척정신!”

김 유 (고등부)

“정신개척! 정신개척!...” 점호시간. 다 비운줄만 알았는데 휴지통에 아직 버려지지 않은 휴지 한조각이 남았다고 ‘정신개척’을 외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번. 나중에는 제대로 펼 수 없을만큼 뻣근해진 다리를 겨우 펴며 어제 일을 생각했다.

힘들고 어렵다는 주위의 온갖 소문을 듣고서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온 나는 이곳의 깨끗한 현대식 건물과 겹겹이 그늘린 얼굴로 공장 직공같은 옷차림을 한 젊은 교관님들을 보는 순간, 참 재미있는 곳이라고 여겨졌다. 무엇보다도 푸르른 신록과 맑은 공기 속에서 도시에서의 학교생활과 일상에 지쳤었던 내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기는 것 같았다.

농군학교 김법일 이사장님의 ‘개척사’ 강의를 통해 나도 개척자의 꿈과 인내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었다.

‘효’에 대해 강의하실 때 김 이사장님의 부모님을 향한 애잔한 그리움이 내게까지 전달되어 가슴이 뭉클하였고, 부모님의 사랑과 효행을 실천한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듣는 동

안 내 눈가에는 함초름이 무엇인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수련회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를 받은 시간이었다.

실습시간. 흙 냄새를 맡으며 농작물을 가꾸게 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벽돌들이었다. ‘농군학교’가 아니라 ‘노동자(?) 학교’였다. 온 몸을 땀으로 목욕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큰 성취감을 맛보았고,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것 또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인줄 예전에는 몰랐었다.

기다리던 소등시간이다. 온 몸에 피곤함이 몰려온다. 그러나 잠자리에 누어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는 감사 뿐이다.

개척정신, 효도의 마음, 절제생활, 주인의식, 성경에 입각한 삶의 원리와 주님을 향한 헌신 등을 새롭게 다짐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시키시기켜 주심에 대해...무엇보다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강원도 산골, 가난한 농군학교 한 모퉁이에서 뜨거워진 가슴과 기분 좋게 나른해진 몸으로 잠에 빠져드는 내 귓가에 어떤 소리가 아련히 맴돈다.

“정신개척! 정신개척! ...”



전도를 하다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주님께서 한 젊은이에게 우리의 발걸음이 닿게 하셨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경영하는 작은 목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를 강하게 거부하며 도저히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게 200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은 엉터리가 아닙니까?” 하는 말로 우리를 당황케 하더니, 급기야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부숴버리겠다고 마구 화를 내는 것이었다. 미남형의 우람한 풍채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고 위협적인 자태에 기쁨이나 평안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경운기를 몰고 들판을 향해 가 버렸다.

전도단원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그 청년에게로 이끄셨다. 들판에서 풀베기에 여념이 없는 젊은이는 더 강박하게 우리를 거절했다. 그를 도와 베어놓은 풀을 경운기에 옮겨 실으려 하자 그 일마저도 뿌리치며 접근을 허락치 않았다.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것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잠시 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 젊은이가 미소를 머금은 얼굴

■ 전도 간증 - 농촌전도단 활동을 마치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정하시는 이”

박 창 수 (95 여름 농촌전도단원)

로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들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달라고 자청하였다.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 그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그런 자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진리를 전하였다.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심도 증거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두 눈을 감았고 우리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의 구원을 위해 간구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청년에게 복음전하기를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 청년도 우리처럼 주님을 영접하여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믿으며 복음을 들려주어야 할 또다른 곳으로 우리는 발길을 재촉해야 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광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2. 민족복음화와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3. 세계를 향해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